

주요개념 : 노인, 장수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

최영희*·이영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죽지 않고 오래살기를 바라는 것은 전 인류의 소망일 것이다. 여러 나라의 민담들은 不死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신화를 담고 있으며, 악마에게 그의 영혼을 팔아 장수의 약속을 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Holmes, 1983). 이와 같이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不老長壽'를 열망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오래 사십시요', '살고봐야 된다'는 말과 갖가지 상징체제들을 (예를들면 十長生, 壽자의 사용)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며 불로장수를 염원한다. 壽는 疇(이랑주)로 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발에서 풍년을 비는 사람의 모습으로 허리를 구부린 노인의 자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김만희, 1988).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증대함에 따라 (남자 : 67.4세, 여자 : 75.4세, (1990년 기준) 보건사회통계연보, 1992), 과거에 비해 노년기를 더 많이 살게 되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노인들의 질적인 삶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건강과 장수는 신체항상성(homeostasis)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며, 장수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 수용, 만족도 및 수명과 관계됨을 볼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과거를 반영한다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보다는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Kaufman, 1986).

다른 연령층보다 죽음이 가깝게 다가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죽음과 관련지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노인문제에의 적응 등을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삶의 수준, 영양의 향상, 및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증가하였고, 노인들도 급박한 죽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다.

Erikson(1963), 장(1981), 서(1987)는 노년기는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이며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 보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건강추구행위(health seeking behavior)를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한다(Bausell, 1986; Prohaska et al., 1985)고 하는데 이는 그들의 삶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것인지, 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인지, 건강에 대한 위협을 인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치 않지만, 노인들도 삶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기독교병원간호전문대학

노인은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유교적인 경로의식은 점차 희박하게 되고 젊음, 생산성, 효율성 등이 중요시 되는 급격한 사회변동은 지난날 가정이나 사회의 실권자였던 노인들을 가부장의 지위에서 탈락시켰고, 전통적인 효도에 대한 무관심과 노인 봉양의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노인들은 불안과 당황을 느끼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부양 기간의 장기화와 노인들의 신체적 노화와 노인들의 질병은 가족들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박재술, 1979; 서병숙, 1986).

더우기 노인들도 병원에서 단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많은 기계와 기구를 사용하여 생명을 연장하느니 보다는 존엄성을 가지고 죽고 싶어 한다(Stub, 1982)는 것을 볼 때 노인들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은 무엇인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죽음에 가까운 시기에 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앞으로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인들의 사고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접근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연구보다는 장수에 대한 연구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포함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맥락에서 오래 산다는 관념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주며, 그들의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한 내면적인 삶을 이해하여 보다 노인들의 실재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는 간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그들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도록 하며 그들의 질적인 삶을 증진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논문은 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 모두가 겪게 되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노인이 되어 죽음을 당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는 기존의 관념에서 노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노인도 자신의 상황맥락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장수에 대한 관념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장수라는 것은 문화적 공통주제이면서도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기존의 문화를 내면화한 사람들이면서 죽음이 다가온 연령층으로

서 삶의 본능적 욕구를 어떻게 타협하며 장수에 대한 관념을 가질 것인가를 그들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연구질문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노인들의 장수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문헌을 살펴볼 때,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 혹은 태도 등에 대한 연구는 없었고 대다수의 연구들은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Kaufman(1986)은 Breslow와 그 동료들의 연구를 토대로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수면, 체중, 금연, 금주, 스트레스가 없는 것, 사회적 유대가 많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노인들이 장수함을 밝혔다. 또한 Duke대학 연구를 토대로 성격을 들고 있는데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건강습관과 건강행위들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Puner(1979)도 유전적 요소, 결혼유무, 적절한 체중 유지, 열심히 일하는 것, 긍정적인 삶의 태도, 종교, 수면습관, 알코올, 담배, 커피 등의 습관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olmes(1983)는 여러 장수 지역을 조사하여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전적, 환경적(기후, 지리적조건), 문화적(음식, 기호식품, 운동, 생활환경, 관습 등) 요소를 들고 있다. 노인에 대한 존경 등 문화적 요소들이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Holmes, 1983),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장수한 일정 연령의 노인들에게는 곡물과 의류를 下賜하고 養老寔을 베풀었던 것을 많은 사료에서 볼 수 있다(김태현, 1975).

특히 목민심서(이정섭 역, 1981) 12편 중 4편인 애민(愛民)의 養老에는 '예법에 대부(大夫)로서 기로(耆老: 60-70된 늙은이) 된 이를 國老라 하고 庶人으로서 耆老된 이를 庶老라 일컬으며, 庶老를 下庠에서 봉양하였으며..., 禮記의 향음주의(鄉飲酒義)에 70, 80, 90세에 따라 각각 대접한 그릇 수가 따로 있으니...' 하며 養老禮의 역사, 養老寔의 초청범위, 養老寔의 의식절차를 소상히 기술하고 경로를 위해 선물하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옛 문헌에서 장수한 노인에 대한 우대, 경로에 대한 문헌이 있으나 노인에 대한 현재의 연구는 주로 부양과 복지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의존적이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가정하에 연구되고 있다.

장수의 측면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연구로는 주로 죽음과 관련하여 죽음에 대한 불안, 태도를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김귀분, 1977; 김태현과 손양숙, 1984; 서혜경, 1987; 김혜련, 1991; 김경자, 1993), 기타 성격 및 지지(양혜정, 1992), 건강상태(서혜경, 1987; 양혜정, 1992) 등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은 물론,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도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장수의 측면과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연구로, 노인들의 건강행위에 대한 연구들은 건강신념모델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연구되지 않았고 건강습관(관행)을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제 변수들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다. 노인들에서의 건강습관이 사망율(10년 동안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Kaplan 등(1987)의 Alameda County Study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Branch & Jette(1984)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습관과 사망율(5년 동안의 연구)과의 관계는 흡연만이 사망율과 관계가 있었고, 다른 건강 습관들은 사망율과 관계가 없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대부분의 건강습관 연구들은 젊은 성인, 중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노인들에서 건강습관(관행)과 사망율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가건강평가의 척도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은 현재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건강을 실제보다 비교적 건강하게 평가하고(Ferraro, 1980; Cockerm et al., 1983), 이들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건강행위와 관계가 있다는,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노인들이 더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한다(Hogan, 1987; Brown & McCreedy, 1986; Ranckhorst, 1987)고 한다. Bausell(1986)과 Prohaska 등(1985)도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보다 건강추구행위를 더 잘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왜 그러한 행위를 더 잘 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Minkler(1978)는 노인들의 경우 건강신념과 실제 행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예를들어, 노인들이 예방주사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노화함에 따라 시력이나 청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문제는 적절한 치료로 교정되거나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노년기의 여러 상황, 환경들 속에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것을 노인들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의 그들의 사고, 가치, 및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김(1991)의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관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문화적인 맥락에서 잘 연구되었지만, 행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사상이나 종교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노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의 맥락에서의 사고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건강습관(관행)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계 및 사망율과의 관계 연구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건강행위를 하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등을 밝히는 것이 노인들에게 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며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은 그러한 의문점의 첫 단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과제라 본다.

이상의 문헌에서 볼 때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현재의 그들의 삶을 반영하면서 연구된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지어 연구되었다.

노인의 장수에 대한 관념은 그것이 나타나는 사회, 문화적 현상과 가장 관계가 깊다(Stub, 1982)는 것을 볼 때,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본능적인 삶의 욕구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가를 제시해 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장수에 대한 노인들의 관점을 파악하고자 문화기술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화기술방법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환경의 맥락내에서의 인간 생활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그들의 행동을 구성하고 경험을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Leininger, 1985; Aamodt, 1991; Wolcott, 1990; Carrithers, 1990). 따라서 문화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보고, 관념(idea)을 사실(fact)에서 관찰하여 양상(pattern) 및 규칙(rule)을 찾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구조화하고 설명한다. 즉

한 상황에 초점을 두고 여기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Wilcox, 1982; Omery, 1988).

Holmes(1983)는 장수는 식이, 가족체계, 가치, 동기 등의 문화적 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할 때 노인의 장수에 대한 관념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노인들의 내부자적인 관점을 문화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이 방법론을 택하게 되었다.

2. 연구지 및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전북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마을이라는 단위가 사회, 경제 및 문화의 한 단위를 이루면서 인간의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지역, 친숙하게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참여관찰과 면접이 가능한 곳, 마을의 역사가 오래되고 기존의 문화를 마을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곳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 앞서 발표한 연구(이영희, 1993)의 연구지에서 행해졌으며, 이 마을의 물리적 상황, 인적 상황 및 생태학적인 측면을 장수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지는 전북에 위치한 한 마을로서 전주에서 약 46.5Km, 남원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 마을에서 2Km 정도 나가면 전라선이 통과하는 역이 있다. 이 역근처에서 보면 마을이 잘 안보이며 마을 뒤의 서산이 병풍을 친 듯 둘러싸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서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식수와 농업용수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구릉지대로 마을 밖에서 볼 때는 산비탈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며 노인들은 이 비탈길을 오를 때 오대산 갈 때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노인들은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일이 드물지만, 외출하는 자식들이 모시러 오거나, 경운기 등을 이용하여 마을 밖 역까지 나가며 과거에는 이곳까지 다 걸어다녔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상가시설이 없고, 장이 서지 않으며 이웃 마을에 3일장이나 5일장이 설 때는 기동이가 능한 젊은 노인들은 이 장을 이용한다.

이렇게 마을이 구릉지대여서 여태까지 수해로 인한 피해는 겪어본 적이 없었으나, 한발(가뭄)시 지대가 높아 물을 댈 수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한다. 대부분의 가

옥이 서산을 등지고 있는 동향집이나 남향집이며, 남부 지방의 전통적인 일자형 가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하다.

이 마을은 땅이 척박하여 하늘밭이 땅, 녹두밭 웃머리라 하였다 하며 과거 20~30년 전만 하여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한다. 주식은 주로 쌀이며, 이는 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진 후의 사정으로 이전에 거의 소작농으로 살던 노인들은 거의 보리밭과 채소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였었다.

새마을운동으로 새로 방죽도 만들고 관개 시설이 확충되면서 가뭄걱정도 없어지고 또한 논농사에서 수익성이 높은 담배, 누에, 작약을 재배하면서 과거보다는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그러나 가구당 1년 평균 수입은 400~500만원 정도로 다른 부락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각 가구당 10~30마지기 정도의 논을 가지고 있으며 논이 없는 노인은 3가구이다. 노인들은 토지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하여 자신이 농사지을 수 있는데 까지 농사를 짓는다. 자식이 있는데도 농사일을 하거나 특히 경제적인 수입의 목적으로 일을 하거나 품삯일을 할 때는 노인이 일을 한다고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노인 자신들도 대부분 일을 많이 하는데 텃밭이나 마당에 깨, 콩, 마늘, 고추, 채소류를 가꾸어 먹는 등 끊임없이 일을 한다. 이는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신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마을은 마을뒤의 사액서원이 철폐되면서 (1871년), 그 서원에 봉헌되었던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편재공의 8대 중손이 입향하면서 부터 그 후손인 최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편재공은 파시조로 부터 5대손으로 이 마을에는 편재공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다른 성씨들도 조부대나 당대에 들어와 살고 있다. 가구수는 51가구로 많이 사는 성씨별로 보면 최씨 22가구, 허씨 6가구, 김씨 4가구, 장씨 3가구, 차씨 3가구 등이다. 과거에는 거의 최씨 당대로 이루어졌으나, 타성들이 유입되면서 타성들이 당내를 형성하거나 최씨들과 혼인하여 인척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층은 도시로 많이 나가고 노인들이 많이 있다 (전체 마을 인구 중 25.3%). 마을 인구 총 150여명 ('91년 10월 기준) 중 20대 이하가 41명, 20~30대가 18명, 40~50대가 66명, 60대 이상 38명 (60대 : 17명, 70대 : 9명, 80대 : 9명, 90대 : 3명) 이다. 그러나 중·고등 학생들과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외지에 나가 있어 실질적으로 마을에는 장, 노년

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은 윗마을, 중간마을, 아랫마을, 건넛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는 관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70세 이상의 노인들로 하였다. 이는 오래사는 것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90대 3명, 80대 3명, 70대 4명으로 총 10명이요 성별로 보면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8명이다. 주 제보자는 최씨 일가의 70대 중부였고, 주제보자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1991년 7월의 약 10일간, 1992년 7월의 약 7일간이었다. 자료분석을 하면서도 한달에 2-3일 정도는 마을을 방문하여 1993년 8월까지 추후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현지조사를 통한 참여관찰과 면접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의 면내의 보건지소, 마을입구의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질병상황, 이용실태 및 치료형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마을의 역사, 행정, 사회조직 등은 50대의 마을개발위원이나 이장을 통해 수집하였다. 노인과 같이 사는 자식들 및 같은 마을에 사는 친,인척들을 통해서도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는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주제보자의 소개나, 참여관찰이나 면접시 노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을 통해 나이가 많은 노인을 소개받은 후 그 노인들을 방문하여 참여관찰,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수집시는 양해를 얻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사건, 표정, 움직임 등은 속소로 돌아와 가능한 빨리 관찰노트에 적었으며 자료 분석시 사용하였다.

연구초기에는 연구 주제와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관찰과 기술적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를 수집하며 분석을 하면서 점차 집중관찰, 선별관찰, 구조적질문, 대조질문 순으로 진행하였다.

나이많은 노인들은 신체적인 조건으로 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면접이나 관찰이 어려웠으므로 가능한 면접시간은 1시간 내외로 하였으며, 자주 방문을 하였다. 자료수집시 관찰이나 면접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노인들에게 비교대조하였고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의 경험이 있는 보조연구자와 함께 관찰, 면접내용을 토의하였

고, 토의한 것도 녹음하여 분석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이 끝난 후 녹음된 자료와 관찰 사항들을 포함하여 모두 필사한 후 자료집을 만들었다.

4. 자료분석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에서는 자료수집, 분석이 동시에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Spradley(이회봉 역, 1989)의 분석방법을 지침으로 하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통해 만든 자료집을 토대로 내용을 읽으면서 의미있는 자료에 줄을 긋고, 내용, 양상, 원리 등을 약자로 표시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명명을 하고, 카드에 옮겨 적어 범주별로 유사한 카드를 다시 분류하였다. 그 다음 이러한 문화적 영역을 포함하는 총괄용어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에 대한 관념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원리는 무엇인가? 를 항상 떠올리면서 분석하였고 이에 18개(장수 노인들의 사회문화적 맥락, 오래 산 것에 대한 반응,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장수의 조건, 원인, 인명재천, 수족다육, 삶의 애착, 삶의 초월, 죽음에 대한 태도, 말년복, 내세관, 죽음준비, 장수의 속설, 노망의 원인, 노망에 대한 태도, 屨의 원인, 기복행위)의 문화적 범주 영역이 나타났다.

이 중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으로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오래 산 것에 대한 반응, 장수의 조건, 인명재천, 수족다육, 삶의 애착, 삶의 초월, 노망에 대한 태도, 노망의 원인, 屨의 원인)을 중심으로 집중 관찰과 구조적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다른 것들은 표면적인 수준에서 같이 분석하였다. 이는 커다랗게 장수의 조건과 장수에 대한 관념으로 총괄용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분석을 하면서 부족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영역을 채우기 위한 구조적 질문 목록을 작성하여 재차 자료수집을 하면서 영역을 채웠다. 각 영역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포함관계 등을 나열하면서 영역의 요소들을 분류분석하여 장수에 대한 관념으로 인명재천, 수족다육, 삶의 초월을 중심으로 분류분석하였고, 그 다음 선별관찰과 대조질문을 통해 구체화 하였다.

IV.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현지조사에서 발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장수의 조건, 장수에 대한 관념-인명재천(명대로 살다), 수족다육(오래사는 것이 육되다), 삶의 초월-을 중심으로 기술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1. 장수의 조건

장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마다 다르다. 이는 그 문화의 생태적 요인들, 관념적 가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Holmes, 1983). 본 연구에서도 여러 요인들이 나타났으며, 이를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환경적 요소

이 마을의 현지조사에서도 생태적인 요소들이 오래사는 데 많이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예컨대 다음과 같다. “여기 서산 물이 좋은 계비여[가봐], 공기도 좋고. 노인들이 모두[모두] 건강하고 오래 사셔” 하고 말한다. 기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기후를 나타내며, 대도시와 가깝지 않고 근처에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맑다. 또한 토질이 척박한 이곳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일을 많이 했었음을 알 수 있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일을 한다. 뒷밭에 고추, 깨 등을 가꾸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한 무엇이든지 하며,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도 고추를 다듬는다든지, 콩을 깎는다든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 또 마을이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오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고, 가옥이 옛날 가옥이기 때문에 동선이 길어 집안에서 오고 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 마을의 기후, 지리적 상태, 토질 등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노동을 요구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많은 운동이 되었고, 또한 오염되지 않은 물, 공기 등이 노인들이 오래사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2. 문화적 요소

이에는 음식섭취, 친족관계, 노인에 대한 공경 등이 포함된다.

이 마을의 노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노인들은 궁핍한 시절을 살아왔던 연령층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살아왔다. 노인들은 오래사는 조건으로 소식을 들고 있는데 이 마을 노인들이 먹는 것을 보면 주식은 밥이며 과거에는 주로 보리를 식사때 마다 갈아먹었다고 한다. 특히 여자 노인들은 과거

가난하였던 시절, 가사일을 담당하였던 주부로서 가사일과 논, 밭일 등의 많은 일을 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본인은 거의 식사를 못하고 멀건 국물만 먹었다고들이 야기 한다. 이는 뒤에서 언급되는 여자 노인들이 남자 노인들보다 더 오래 살수 있었던 요인이 된다고 본다.

근처에 상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식을 마련하기가 용이치 않으며, 집에서 가꾼 채소 반찬을 주로 해서 먹는다. 치아가 없는 노인들은 국이나 물에 말아 적당히 먹는다. 노인이라고 해서 적게 먹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식사의 질로 볼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음식보다는 탄수화물과 채소류가 주류를 이룬다.

어떤 노인은 밥 잘먹고 잘자는 것이 오래사는 비결이라고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오래 산 사람 얘기들으면 단맛, 단잠이여. 밥 잘먹고 잠 잘자야 오래 사는 기여. 그 무엇이냐 하면 위가 사람은 기계로 말하면 위라는 것이 원동력인 갑드만[가봐], 밥을 잘 먹음으로서 위가 튼튼하게 잘 먹는기여. 그러니까 오래살어.” (**)

이 마을의 노인들 중 술을 많이 마시는 노인은 거의 없으며, 식사시 반주로 한, 두잔 마실 정도이다. 담배도 노인들끼리 어울릴 때 반개피 내지 한 개피 정도 피울 정도이다. 술과 담배는 노인들에게 노인임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하며, 여자 노인들도 대개는 술과 담배를 한다.

또한 이 마을은 과거 서원이 있었던 영향으로 일상에 있어서 유교적인 생활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또 마을 주민들이 당내, 친, 인척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지망이 잘 형성되어 있고, 노인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라는 것 많으로도 존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도 이 마을 노인들의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유전적 요소

연구참여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마을에서 오래 산 노인들은 여자가 더 많다. 이에 대해 노인들은 여자들명이 남자보다 길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장수의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진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이 노인들의 부모들이 과거 70세 이상 까지 살아 비교적 유전적인 소인을 보이는 노인들도 있으나, 이 마을의 노인들에서 이러한 요소는 일관되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이 많은 노인들의 형제, 자매들도 비교적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적은데, 노인들은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이 오래 살 경우 다른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고 말한다. 이는 뒤에서 언급되어지는, 아들이 먼저 죽을 경우 아들 壽를 빼앗아 노인이 오래 산다고 하

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마을에서 노인들이 장수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죽물과 공기, 소식, 단맛, 단잠, 여자(성별)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마을의 생태학적, 환경적, 문화적인 조건들도 장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장수에 대한 관념

1. 人命在天(명대로 살다)

노인들은 오래사는 것은 타고난 명(命)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사람의 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태어날 때의 사주팔자가 중요하다. ‘짚자리서 명난다’는 말은 출생시에 짚자리를 깔고 낫기 때문에 짚자리서 명이 정해진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속상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일찍 죽지는 않는다고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속상해서 죽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고. 못 죽는다고. 속상해서 죽진 않아. 00덕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애티져 갖고 죽은 무덤은 없어. 억지로 죽는다고 해도 억지로 죽는 것도 다 팔자여, 제 팔자소관이며. 그렇게 타고난게 죽지. 억지로 못 죽어” 하고 얘기한다. 00할머니는 자식이 미쳐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시집간 딸이 병들어 친정에 와서 죽어 험한 꼴을 많이 보아왔고, 너무나 가난하여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한다. 노인들은 그 할머니에 대해 “그래갖구 밥을 매는 형상을 보면 평생 꼬부라져 갖고 한 주먹이나 돼 갖고 …. 이려고 기어올라가면 가다가 죽겠다 싶었어. 그런데 그 할머니 지금까지 사신 것 보쇼” 하며 얘기한다.

이는 죽는 것도 제명이며 스트레스가 명을 단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런 중병을 죄해싼게[모두 하니] 사람이 어찌롭[어찌] 살겠어. 명이 긴게 살지. 그래서 그러롭[그렇게] 별 병을 다 앓았어도 죽던 날고 ….” 하는 것과 같이 노인들이 살아 오면서 갖은 병을 다 경험하면서도 살은 것은 명이 길기 때문이라고 한다.

“즈기[자기] 운명을 타고난 그 시간이 되면 죽어, 죽을 시간이 닿으면 그날 날신한테 타고난 시간이 닿으면 죽어” 하고 말한다. 즉 죽을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명을 점지해 준 신과 죽을 시간을 정해준 신한테 빌므로써 명을 연장시키고자 한다. 과거 우리 사회는 의료시설, 기술의 취약 등으로 출생시나 영, 유아기 때의 사망율이 높았다. 그에 따라 자연 ‘壽’를 비는 기복

행위가 많았고 그런 것은 자연 조모의 역할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노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아 그전에 우리 할머니가 손을 비비면 … 생일이 돌아와 손을 비비면 성주조상, 삼시랑상, 셋 놓고 해여. 한 상에는 밑에다 짚을 펴놓고 손을 비벼 … 성주조상을 들먹임서[들먹이면서] 우리 손자 잘되게 해달라고[해달라고] 하고 또 명은 동방삭이가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그러거든. 그래 동방삭이 명을 점지해 달라고 그러고 ….” (**)

그러나 노인들을 명길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행위는 없다. 노인에게 있어 명을 길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행위가 없는 것은 대부분 명이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정해진 명에 따라 살기 때문이라는 관념때문인 듯하다. 또한 노인들이 늙어가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인들이 고생하지 않고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노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느즈막에 고생않고 얼른가고, 죽을막에 고된 복이나 탔으면 좋겠어[좋겠어]. 살놈은[살것은] 이제 다 살았을게[살았으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명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것은 생물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관조하며 살 수 있게 한다. 이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이런 죽음의 수용은 같은 나이 또래의 노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壽即多辱(오래 사는 것이 욕되다)

명대로 산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대부분 오래사는 것이 욕이라고 한다. 이는 우선 자신의 몸이 되고 육체적으로 감내하기 힘들어져서이다. “그냥 무랑무랑 차차차 차 더 못돼지지 … 그걸보면 얼마 안이면[안있으면] 가겠다. 얼마 안이면 죽겠다 싶어도 이렇게 안죽어. 수를 하면 욕을 본대드니 이렇게 부대껴 죽겠어 …”, “귀찮여, 오래살면 귀찮혀. 누가 뭐 양식대주고 괴기[고기] 사다주고 돈주고 해도 못써 … 괴로와 못견더요[못견더요]. 이렇게 앉아 놀기도 참 되여이” 하며 “아구 어찌 이렇게 명을 길게 타고 낫을까” 하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또한 의료시설이 미비하고 의료혜택을 못 받았던 시절, 노인이 오래 살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식들이 죽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혈연관계가 중시되는 관계사회에서 자식은 가계를 잇는 수단과 목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노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곧 자신의 힘이고 울타리가 되고 자신의 삶이다. 그런 자식이 죽게된다는 것은 가장 큰 욕이 된다. 이에 대해 노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앞으로 불행한 거를 하나도 안보고 가는 건 인 [복인]이고 자식이 죽거나 손자가 죽거나 며느리가 죽거나 … 그건 욱이지”, “오래 산 사람치고 그 나쁜 꼴을 안 본 사람이 없어”. 따라서 적당한 때 죽어야 한다.

이런 관계사회에서는 집단에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하며 집단의 가치에 동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인이 오래사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며 노인이 너무 오래살아 자식 복 빼아가 자식이 일찍 죽는 것이라고 한다. 나이가 많은 극노인이 있는 집에서는 점쟁이한테 가서 언제 죽을 것인가, 왜 오래 사는가를 물어보기도 한다. 자식들이 4명이나 먼저 죽은 95세된 노인의 경우 이 노인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고 꽃을 따서 구석에 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을 앞에 보냈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한다. 꽃이란 무속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상징체계이다. 이 95세의 노인은 천주교를 믿고, 그 자식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나 현재 믿고 있는 종교와 상관없이 일상사에 대한 사고나 가치를 보면 여러 종교가 혼합된 가치 체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수에 대한 관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노인들은 한해의 신수를 물어보고 언제 죽을 것인가를 물어보기도 한다. “올해 안죽으면 수(壽)가 있는데, 올해 죽어야 한대” 하며 노인들끼리 얘기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것은 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서도 오래살므로써 삶에서 부딪치는 괴로운 일을 면해보고자 함에서이기도 하다.

집단성이 강하고 위계질서가 뚜렷한 이 마을에서는 노인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위계의 위를 차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식이 노인이라도 부모가 있으면 노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극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욕(辱)’이 된다. “시방[지금] 췌 받느라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 죽을만한 때는 적당히 죽어야 하느디. 자식이라도 환갑[환갑]을 지내고 그랬는디 늙은 사람이 있는게 늙은 영감노릇을 못해” 하고 말한다. 또한 “오래 산게 넘도[남에게도] 부끄럽지, 이렇게 오래살아도 내 귀에는 안들어와도 내 지력이 다 날아다니고 있어. 아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넘[남]이라도 … 죽으안디[죽어야 하는데] 안죽고 살아서 어찌구 저찌구 한다고 … 넘[남]의 여론이 있다구 해갔구 …” 하는 것과 같이 오래살므로써 남이 뭐라하지 않을까 남을 의식하게 된다.

또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감소되면서 소외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辱이라고 한다. 이외에 오래살므로써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도 다 ‘욕’이라 한다. 즉 오래 살므로써 심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욕’이라 한다. 또 오래 살게 됨으로써 당연히 신체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욱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같이 수즉다욕(壽即多辱)이란 오래살므로써 노인들이 신체적으로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한 심리적 안위를 위해서이기도 하며, 자식에게 누를 안끼치고 좋은 인상으로 남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래살므로써 겪게 되는 심신의 고통을 모두 수즉다욕이라 하며, 이는 죽음으로써 현세에서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노인도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존엄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존감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노인들의 노망에 대한 태도에서 볼 수 있다. 노인들이 오래살므로써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노망이다. 노인들은 다른 노인이 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고 나도 그러면 어찌나” 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도 노망했다 소리들을까봐 걱정한다. 예컨대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극노인에게 다른 노인이 공공요금내는 것을 부탁했는데,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며칠동안 전해주지 못하자 ‘아이~댁이, 나 노망을 해서 이제 돈도 받아서 안주고 모른가부다 그런갑다[그런가보다] 하겠다’고 걱정을 하였다. 노인들은 모이면 노망나지 말아야지 하고 얘기한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노인 1 : 정신 바버리고 똥싸면 참 큰 문젠디[문제인데]. 큰일이여 안죽으면 어쩔까 몰라

노인 2 : 아 그러니까 똥 안싸때 까지 살아야지

노인 1 : 아 그러디[그런데] 맘대로 할 수가 있는가

하고 걱정한다. 노망으로 대소변 받아내면 천해진다 고 생각한다. 이 마을에서 노인들은 전통적인 ‘孝’ 개념에 의해 자식, 며느리에 의해 봉양될 것이 기대되지만 실제로 봉양하는 당사자는 어려움을 실토한다. “내 손으로 비운게 그러지 손주며느리가 똥을 비우면 어쩔까 [어떻게 하나]” 하고 노인이 오래 사는 것을 걱정한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늙어짐으로써 노동력의 감소되어 노동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고, 노망나게 될 경우 가족은 더욱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에서 조상은 자식을 위해 덕을 행하며, 30세를 한 주기로 볼 때 노인으로서의 통과이레(환갑)를 거친 노인은 산조상이 된다. 따라서 노망하는 것 망명은

부정상태의 영혼으로서 (최길성, 1988) 자손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망령이 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 마을에서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이 노망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노망난다고 한다. 즉 마음을 잘 못쓰는 사람이 노망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노망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차리면 노망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노망나지 않도록 60대에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올바른 품행을 가지면 노망나지 않고, 70, 80대가 넘으면 노망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신을 바르게 하고 노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는 노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노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노인들은 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고, 오래 살므로서 신체적으로 힘들어지고, 삶에서의 여러 경험 등을 통해 수족다육을 느낀다. 이런 수족다육은 노인들의 현재의 삶의 고통,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삶에 대한 애착도 가지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삶을 초월하고 있다.

3. 삶의 초월

우리 속담에 ‘말뚱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산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이기문, 1976) 라는 말은 욕되고 고생스럽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다.

노인들은 죽음에 임박해 있고 죽음을 수용하고 노상 ‘죽어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죽음보다는 좀 더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이는 노인들이 다음과 같이 하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아고 죽어야지 하는 사람이 막상 죽을 때가 되면 나 살려 달라고 한다고, 죽어 죽어 소리가 이 배깁[바깥]에서 나와” 하며, “노인들이 죽여 달라고 하다가 실제로 죽을라면 나 살려 달라고[살려달라고] 뒤로 기어간다”고 얘기한다. 또 “참 백살을 묵어도[먹어도] 죽을라면 안좋대. 싫대 마음에. 만약 그렇게 해봐 날 달겨라 안한가” 하면서 죽음에 대해 서운해 한다. “가도 안된거여 다 안 좋은게. 대처 서운해서”, “죽을 마당에는 백살을 먹으나 한 살을 먹으나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진디. 벌써 죽을라가 조계[조금] 덜 먹은 사람들은 조계 더 살아야 한다[하는데]. 그세[벌써] 죽을라가 그래서 한심스러운디 ... 조금 더 살고 싶고, 더 살고 싶지” 하고 죽음에 대해 서운해 한다.

“꼬불꼬불 땀기고 머리허연 사람이 어디 나땀기면[나

다니면] 아고 나도 저렇게 되면 땀기 말아야겠는디 그랬는디 근데 그게 아녀. 자꾸 욕심이 늘어 ... 가고 잔데는[싶은데는] 더 가고 잡고[싶고], 땀기고 싶고, 보고 잡고 욕심이 늘어” 하고 얘기한다. 따라서 생일상차려 놓고 사진찍는 것도 “아 뭐 뒤편[죽어서] 저 사자상 모앵으루 채려 벌려났어. 아 뒤편은기비, 왜이려” 하며 화를 내고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한다.

오래사는 것에 대해 노인들은 표면적으로 “살만큼 살았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하면서도 과거 고생했던 시절보다 이렇게 살기 좋아진 세상에 조금 더 살고자 하는 양가감정을 보인다. “난 오래상계[오래 사니까], 이런 좋은 세상도 보고. 시방은[지금은] 보리도 안갈고, 보리갈아 보리밥도 먹어 썩드니 보리하나 구경도 못하고 허연 쌀밥에다가”, “이런 좋은 시상[세상]을 보면 아이고 내가 60만 되도 더 조계 보겠는디.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어버려 금방 죽을 상부러[싶어] ... 우리는 한 시상을 몸떨라게[몸서리나게] 살았는디. 이런 좋은 시상이 왔어” 하며 삶에 대한 아쉬움을 보인다.

또한 오래산 것에 대해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98살 먹은 노인은 “오래 살았다구 큰 상받았어” 하고 자랑하며, 다른 90대의 노인도 “마흔 세살에 난 막둥이가 슬너를 봤어 하하, 아 그루두룩[그렇도록] 살아서 뉘들거여 잉” 하면서도 오래 산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오래사는 것에 대해 등경을 표현한 것으로 오래사는 것에 대한 많은 속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 마을에서 장수에 대한 속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귀가 크게 생겨 오래 산다’. ‘수의를 해 놓으면 명이 길어진다’. ‘인증이 길면 오래 산다’. ‘석관을 묻어 놓으면 명이 짧아진다’. 이러한 장수에 대한 속설은 인간이 오래살고자 하는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늙음과 죽음을 수용하고 자신을 자식과 연결시키며 자식을 통해 영속적으로 살 수 있으며 혈족적인 연속성 속에서 자신의 삶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생에서의 삶을 초월할 수 있으며, 오래 사는 것보다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지 않고 쉽게, 잘 죽기를 바란다. 잘 죽는 것이란 죽을 때 고생안하고, 노망안하고 죽는 것을 말한다.

노인들은 죽는 것이 서운하며 오래 살고자 하지만, 자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계속될 수 있으며, 자신은 조상이 되어 자식에게 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삶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삶의 초월은 우리 문화에서 노인들의 죽음관, 죽음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

다.

이와같이 노인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인내하고 살아왔다. 자식을 위해 베풀기만 했고 자신을 위한 준비를 못한 세대들이며 이제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신을 위해 눈을 돌릴 때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한때는 사회를 지배하던 세대들이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되고 도외시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장수에 대한 관념인 人命在天, 壽即多辱, 삶의 초월은 노년기에는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는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 노인의 삶에 대한 다차원적인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V. 논 의

여기에서는 연구결과에 나타난 것과 선행연구와를 검토하여 장수의 조건과 장수에 대한 관념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수의 조건

장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문화마다 다르다. 본 현지 조사에서 발견한 바로는 환경적인 조건으로 좋은 물, 공기, 지리적, 지역적 특성, 문화적 요소로 음식섭취 양상, 성별(여자), 노인에 대한 공경, 유전적 요소로 성별 등이 나타났다. 그 외에 이 지역의 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일하는 것과 단맛, 단잠 등도 있다. 미국에서는 일하는 것(운동), 먹는 것, 술, 담배를 적당히 하는 것, 스트레스가 적은 것이 장수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일하는 것,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다른 문화에서는 이와 다르다(Holmes, 1983).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전적인 소인, 환경적, 물리적(생태학적) 소인, 문화적 요인들이 장수를 촉진한다고 보고 있다. 생태적, 문화적 요인들은 먹는 것(신선한 음식, 저칼로리 음식), 술, 담배안함, 일을 함, 환경적 조건을 들고 있다. 사회체계, 노인에 대한 태도(존중) 등은 문화적 요인으로 장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은 소련의 Abkhasia, 서파키스탄의 Hunza, 안데스산 지역의 Vilcabamba를 통해 볼 때 입증되었다고 본다(Holmes, 1983).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났다.

오래 사는 것은 결국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이는 노화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게 된다. 노화에 대

한 이론으로는 커다랗게 프로그램 이론(유전적)과 소모이론(환경적)으로 보고 있다. 노화를 방지한다면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은 대체로 120세로 보고 있다(Botwinick, 1984; Perlmutter & Hall, 1985; Holmes, 1983). 이러한 인간의 수명대로만 산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장수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家係의인 유전적 소인은 뚜렷이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어려웠고, 의료시설이 미비했던 탓이라 본다.

유전적인 요인외에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장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끊임없었다. 이에 여러가지 장수법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좌관법(坐觀法), 좌선법(坐禪法) 등은 한 방법이였다. 동양에서는 주로 정신적인 것으로, 서양에서는 육체 운동을 위주로 하여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장수하고자 하였다(유병서, 1980).

본 연구지는 서산이 둘러싸여 있어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나오고 주민들은 이 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한다. 또한 마을이 대도시와 떨어져 있고, 역과는 2Km 정도, 큰 도로와는 5 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선한 공기를 유지한다. 운동은 골밀도를 증진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장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Botwinick, 1984). 이 마을의 노인들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논, 밭일이라든가 집안일 등 많은 일을 하여왔고, 집안의 동선이 길어 운동량이 많고, 마을이 구릉지대라 노인들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될 수 있다. 즉 노인들은 운동의 개념이 따로 없고 생활이 곧 운동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이 유전적으로 여자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하는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적, 문화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이는 여자노인들이 남자 노인들 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말하여 주는 이 마을 50대 남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민촌보다 양반마을이라 하면 좀 일찍 죽고, 양반이랍시고 글 읽고, 여름에도 버선신고 그러니까 인체적으로 좀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일이 많죠. 민촌같은데는 막 남, 녀가 같이 일도 하고... 여기서는 서원이 있다보니 인자, 일년 내내 글 읽고. 그런 선비들은 일년내내 가야 뭐... 몸이 약해지죠”(00)

또한 대가족 제도하에서 여자들의 일이 남자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자들은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다. 이러한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과거 일제시대와 6.25, 경제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궁핍한 시기에 살았던 노인들이기 때문에 못 먹은 것, 적절한 스트레스가 장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유병팔, 1990). 그러나 현재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노인이 되는 세대들이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정(1991)의 연구에서 도시 노인들이 시골 노인들보다 질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는 데도 도시 노인들이 더 빨리 노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마을의 노인들은 노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위계성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당내, 친, 인척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존경은 노인들이 오래 사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

문화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조건으로 행복하고, 적절히 먹고, 존경받고, 활동적이고, 나쁜 습관을 적게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의 또 다른 지표로는 성적 성숙속도, 대사율과 칼로리 섭취량, 동물의 크기를 들고 있는데 성적 성숙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고, 대사율이 높을 수록 수명이 짧다고 본다(Holmes, 1983). 이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는 것을 일부 설명해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나타난 조건들이 조성이 안된 노인들은 일찍 죽고, 건강이 나쁜 노인들은 일찍 죽어 본 연구에서의 장수하는 노인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들이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들이 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들을 간호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2. 장수에 대한 관념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한 것은 人命在天(명대로 산다), 오래 사는 것이 욕되다(壽即多辱), 삶의 초월이다.

人命在天은 노인들의 생과 죽음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의 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 이는 黃帝內經(1972)에서 노화의 과정을 묘사하는 것과 上器, 中器, 下器와 선천의 품부가 구성하여 장수와 단명이 가름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수명에 대해 민담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88; 최운식, 1987)에서는 명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중국의 定命論과 觀象論의 영향이라고 (손진태, 1981) 보고 있다. 즉 어떻게 해도 죽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이나 염라대왕과 타협을 하거나, 속이거나, 저승사자를 대접하여 그에 대한 보답으로 壽를 늘리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덕을 쌓아 壽를 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들은 인간의 삶은 유한함을 보여준다. 인간의 죽음의 운명을 극복하고 삼천갑자를 살아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승리자인 東方朔도 솥을 씻어 하얗게 한다는 하찮은 구경거리에 호기심을 갖고 참견하다가 잡혀 죽게 된다. 동방삭이 자신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저승사자도 몰랐을 것이라는 것은 저승도 별로 시원찮은 것이라는 것이다. 즉 삶이란 정해져 있고, 인생은 연극이란 의미라고 (최래옥, 1982) 하였다. 또한 진시왕이 불로초를 기다리다 죽는 이야기나 불로초나 보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밥 잘 먹는 것이며, 부지런히 일하고 노력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오래산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수명은 정해져 있고, 인간의 죽음은 누구나 당연하는 현상이므로 열심히 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본 연구의 노인들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내면화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과는 달리 영양학자, 생물학자들은 절식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절식을 들고 있다 (유병팔, 1990, 1993; 정진은과 김숙희, 1991). 정(1991)의 연구에서 노화가 늦게 나타난 노인들이 젊어서 부터 계속해서 고기를 적게 먹었다는 결과와 노화의 현상에 영양소의 질의 영향은 뚜렷하지 않으나 양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적게 먹을수록 노화현상이 늦게 나타난다고 하여 노인의 영양권장량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결과들은 이 마을의 노인들과도 일치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즉 노인들은 양질의 음식을 풍족히 먹지 못했다. “얼매나[얼마나] 배가 고프면 상주 한 소구리하고 된장하고 갖다 놓고 싸먹어, 밥은 없고”, “우리 어마이가 밥먹는데로 시집보냈어” 하는 말이나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식 죽은 것은 그렇게 왈작 안 생각나고 배고픈 것이 ... 마악 달기뚱같은 것이 텅텅텅텅 엉그러지면서 밤만 먹으면 살 것 같대” 하는 말들은 과거에 많이 굶주렸었고 지금도 그렇게 양질의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마을 노인들이 오래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마을 노인들은 술, 담배 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양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요인도 있겠고, 또 많이 하던 노인들은 일찍 사망했을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지만, 이것이 노인들의 수명과는 무관함을 보인다. 이는 사람들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는데 먹는 것, 술, 담배의 영향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壽即多辱에 대한 결과에서 보면 노인들은 오래 살므로서 자식이 죽는 것을 가장 큰 욕(辱)이라고 한다. 부계사회에서 자식은 대를 이어갈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근거가 된다. 자식은 곧 자기와 동일시된다. 그런 자식이 죽는 것은 노인들에게 가장 큰 욕이 되는 것이다.

Harris 등(1989), Roberts & Kimsey(1972)의 연구 결과에서는 노인들이 늙어가면서 건강이 감소하고 외양이 변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외로워지는 것 등을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였다. Botwinick(1984)도 노인이 늙어가면서 신체적 변화와 그로 인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근심이 건강이 나쁜 것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오래사는 것에 대한 반응과는 약간 다르지만 늙어가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한다.

특히 노인들이 늙어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노망인데, 신체적인 쇠퇴로 인한 것과 정신적으로 퇴락해서 자신의 품위를 잃게 되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는 노인도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관계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사는 노인들이 비록 신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존감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90)나 외국의 연구결과들이 주로 신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본 연구결과에서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노망은 신체, 사회, 정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더 포괄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재정적, 외로움

등의 측면이 별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혈연 부계성이 강한 이 마을에서 자식들이 당연히 부모를 모실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초월에서 노인들이라도 죽는 것이 서운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본능이 노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불로장수에 대한 인간의 염원은 인간의 보편적인 특질이다. 본 현지조사에서는 명을 길게 해 달라고 기원할 때 東方朔이 명을 달라고 하였다는 데 동방삭은 38,000세를 살았다고 하며 그래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 불리운다 (최운권, 1985)고 한다. 기존의 문헌에서는 노인들이 죽음을 잘 수용해야 하며 그것이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도 노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등을 다루었다 (김귀분, 1977; 장미란, 1981; 서혜경, 1988; 김태련, 1988).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도 더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염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자식을 통해 이를 초월하며 영속적으로 살 수 있으며, 따라서 장수를 갈망하기 보다는 적당한 때 잘 죽기를 바란다. 이는 기존의 논문들에서의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다른 것으로 노인들의 삶이 좀 더 폭 넓게 확장한다는 입장에서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시킨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장수에 대한 노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문화기술방법을 적용하였고 자료수집은 1991년 7월 부터 1993년 8월 까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장수의 조건은 좋은 물, 공기, 소식, 단맛, 단짠, 성별(여자)이며 이외에도 이 마을의 생태적, 환경적, 문화적 요소들(과거에서 부터 일 많이 하여 온 것, 굶주린 것, 채소류의 음식 섭취, 구릉지역과 주거환경, 노인들에 대한 존경 등)이다.

노인들의 장수에 대한 관념은 人命在天(명대로 살다), 壽即多辱(오래 사는 것이 욕되다), 삶의 초월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좀 더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인명재천, 수족다육, 삶의 초월의 관념으로 죽음을 수용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명재천의 관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명을 규정함으로써 삶과 죽음에서 탈피하여 현실지향적으로 열심히 산다는 것이다. 수족다육, 삶의 초월은 자식을 위한 애타

적인 초월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족다육이라 하여 신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것, 자식이 먼저 죽는 것 등을 욕(辱)이라 하였고 노망을 제일 두려워하였다.

노인들의 이러한 장수에 대한 관념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며 살며, 삶에 대한 집착보다는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죽음과의 연관선상에서 더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발견으로 간호에의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인이 비록 신체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존감을 유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도 삶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현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 젊었을 때부터 일하고,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적게 먹고, 친, 인척들의 지지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존경받는 환경에서 지금의 장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고려해 보며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이 오래 살면서도 질적인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장수에 스트레스나 성격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측면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발견된 각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다른 상황에서도 연구를 하여 노인들의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수에 대한 관념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高藤聰郎(1985). 仙, 불로불사. 최운권(역). 서울:보성출판사.
 김경자(1993). 종교참여에 따른 노인의 죽음 불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귀분(1977).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귀분(1991). 한국인의 건강관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김만희(1988). 한국의 수복도. 서울:상미사.
 김태현(1988).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미국 나성 교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

(1), 30-47.
 김태현(1975). 조선시대의 노인보호사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김태현, 손양숙(1984).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6, 3-19.
 김혜련(1991). 노인이 지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도-유료 및 무료시설과 재가 노인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박재술(1979). 고령자의 정년, 인력활용 및 생계대책.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복지. 서울:한국노인문제연구소
 보건사회통계연보(1992). 제38호. 보건사회부.
 서병숙(1986). 부모 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101-120.
 서혜경(1988). 한. 미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7, 39-60.
 손진태(1981). 한국 민족 실화의 연구. 서울:태학사.
 신광균(1986). 중년기의 건강과 운동. 서울:이우출판사.
 스프래들리, J. P. (1989). 문화타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이회봉(역).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양혜정(1992).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노인의 죽음 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유병서(1980). 인간은 백년을 살 수 있다-장수의 비결 二. 서울:수문사.
 유병팔(1990). 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초청강의 중.
 유병팔(1993). 오래 살려면 적게 먹으세요. 조선일보, 4월 25일.
 이기문(1976). 한국의 속담. 서울:삼성문화재단.
 이영희(1993). 한국 노인의 건강 생활양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정약용(1981). 목민심서. 이정섭(역). 서울:민족문화추진회
 장미란(1981).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정진은(1991). 한국노인의 영양섭취의 실태와 노화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정진은, 김숙희(1991). 한국노인의 영양섭취 상태가 노화현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지, 1(1), 98-106.

- 최길성(1988). 부정관념으로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국인과 한국문화-인류학적 접근. 한상복(편). 서울 : 심설당.
- 최래욱(1982). 전북민담. 서울 : 형설출판사.
- 최운식(1987). 한국의 민담. 서울 : 시인사.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90).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 제2차 국제비교조사. 서울 :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 한국구비문학대제(1980-1988). 서울 :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홍원식 역(1972). 황제내경 素問해석. 서울 : 고문사.
- Aamodt, A. M. (1991). Ethnography and Epistemology : Generating nursing knowledge, J. C. Morse(E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 A contemporary dialogue.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Bausell, R. B.(1986). Health Seeking Behavior among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6(5), 556-559.
- Botwinick, J.(1984). Aging and Behavior : A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Research findings(3rd ed.).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Branch, L. G., & A. M. Jette (1984). Personal Health Practices and Mortality among the Elderly. AJPH, 74(10), 1126-1129.
- Brown, J. S. & M. McCreedy (1986). The Hale Elderly : Health Behavior and its correlat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9, 317-329.
- Carrithers, M.(1990). Is Anthropology art or science?. Current Anthropology, 31(3), 263-282.
- Cockerham, W. C., K. Sharp, & J. A. Wilcox (1983). Aging and perceived Health Status. Journal of Gerontology, 38(3), 349-355.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 Norton.
- Ferraro, K. F. (1980). Ratings of Health among the Old and the Old-Old. J. of Health & Social Behavior, 21, 377-383.
- Harris, M. B., Begay, C., & Page, P.(1989). Activities, Family relationships and feelings about Aging in a Multicultural elderly sample. Int'l J.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9, 103-117.
- Hogan, P. A. (1987). Health Status perspectives affect Health-Related behaviors. J.G.N., 13(2), 30-33.
- Holmes, L. D.(1983). Other cultures, Elder years : An Introduction to cultural Gerontology. Minneapolis : Burgers Publishing company.
- Kaufman, R. C.(1986). The Age Reduction system. New York : Rawson Associates.
- Kaplan, G. A., T. S. Seeman, R. D. Cohen, L. P. Knudson, & K. J. Guralnik (1987). Mortality among the Elderly in the Alameda County Study : Behavioral and demographic risk factors. Am. J. of Public Health, 307-312.
- Leininger, M. M. (1985). Transcultural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 A theory of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6(4), 209-212.
- Minkler, M.(1978). Health Attitudes and Beliefs of the Urban Elderly. Public Health Reports, 93(5), 426-432.
- Omery, A.(1988). Ethnography, B. Sarter(Ed.) Path to knowledge : Innovative Research methods for nursing. New York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 Perlmutter, M., & Hall, E.(1985). Adult development and Aging. New York : Jhon Wiley & Sons.
- Prohaska, T. R., E. A. Levental, H. Levental, & M. L. Keller (1985). Health Practice and Illness cognition in Young, Middle 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0(5), 569-578.
- Puner, M.(1979). To the Good Long Life. London & Basingstoke : The Macmillan Press, LTD.
- Ranckhorst, L. M.(1987). Health habits of Elderly Widows. J.G.N., 13(8), 19-22.
- Roberts, J. L., & Kimsey, L. R.(1972). How does it feel to Grow old?-Eleven Essayists answer. The Gerontologist, 389-392.
- Stub, H. R.(1982). The Social consequences of Long Life.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Pub.
- Wilcox, K.(1982). Ethnography as a Methodology and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schooling : A Review, G. Spindler(Ed.). Doing the Ethnogra-

phy of Schooling. New york : Holt, Reinhart and Winston.

Wolcott, H. F.(1990). Making a study more Ethnographic.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19(1), 229-243.

- Abstract -

A Study on Thoughts of the Elderly about Long Life(Chang su)

Choi, Young Hee . Lee, Young Hee***

A long life is the desire of many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thoughts that are held by elderly people about long life as the elderly are approaching the end of life.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an ethnographic method to add understanding to this subject. The field work for this study was done from July, 1991 to August, 1993 in third phases in Chun 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e following :

The thoughts of the elderly about chang su

showed three important concepts: In Myoung Sae Chun(lived as life), Su Cheuk Dah Yok(long life is a disgrace), and Transcendence of life. In Myoung Sae Chun showed the thought of limitation of man's life and realistic thought about the life through free oneself from death and life. Su Cheuk Dah Yok meant experience of physical difficulty, experience of sons and daughter's death ahead one's own self. Senility was the most afraid problem for the elderly. Transcendence of life showed pursuit of a continuing life through connected with sons and the family.

The conditions promoting chang su were described as clear water, fresh air, adequate eating, deep sleeping, gender(female). In addition it showed that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heavy work, starvation, vegetable food, physical environmet, respectation for the elderl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elderly was recognized one's own self as living being rather than adhered to the life, and will promote understanding the elderly's desire for long life. Also, suggested to nursing practice that should maintain self-esteem and respect for the elderly. Therefore, these results can be used nursing practice for the elderly.

* College of Nursing, Ewha Women University.

** Christian Hospital College of Nursing.